



# 네임스 로 창

2022 AUTUMN vol.25

### Hot 人

4차산업의 트렌드 드론으로 생명을 구조하는  
‘박문호 대장’의 구조이야기

### 안전을 부탁해

장흥구조대의 자신감은  
훈련으로부터!

### 환경을 부탁해

파키스탄의 홍수, 유럽의 폭염, 지구의 경고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흔적들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22 10  
제25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2년 9월 29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해관 최수남(海觀 崔守南)선생의 작품으로 '넙실대는 파도를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바다를 통해 치유 받는 마음'을

## CONTENTS

|                      |  |
|----------------------|--|
| <b>Special Theme</b> |  |
| 04                   | 기고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장인식                                       |
| <b>MARSА News</b>    |  |
| 06                   | 본부 뉴스  |
| 07                   | 1)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   |
| 08                   | 2) 제주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드론 역량 강화 특화교육」 실시                  |
| 10                   | 3) 「민간구조경진대회」 개최   |
|                      | 4) 에버랜드(케리비안베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
| <b>지부·지역대 뉴스</b>     |  |
| 11                   | 1) 전남서부지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정화활동 실시                           |
| 12                   | 2) 부산지부·경북지부,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영예    |
| 14                   | 3) 울산지부,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정화활동                          |
| 15                   | 4) 장흥구조대, 추석 명절 맞이 해안가 대청소                               |
| 16                   | 5) 전남동부지부, 여수해경특수구조대와 「12주기 훈련」 실시                       |
| 17                   | 6)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안전요원 활동            |
| 18                   | 7) 경북특수구조대, 포항해경구조대와 합동훈련                                |
| 19                   | 8) 경남동부지부, 7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소고도 인명구조센터」 운영              |
| 20                   | 9) 울주구조대, 「진하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운영                             |
| 21                   | 10) 전남서부지부, 독도~이어도~가거도 해양영토순례                            |
| 22                   | 11) 완도구조대, 「명사십리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운영                          |
| 23                   | 12) 전국 구조·구난소식   |
| <b>MARSА Story</b>   |  |
| 27                   | Hot 人 4차산업의 트렌드 드론으로 생명을 구조하는 '박문호 대장'의 구조이야기            |
| 31                   | 안전을 부탁해 장흥구조대의 자신감은 훈련으로부터!                              |
| 34                   | 환경을 부탁해 파키스탄의 홍수, 유럽의 폭염, 지구의 경고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흔적들 |
| <b>MARSА Info</b>    |  |
| 37                   | 해양경찰소식   |
| 38                   | 1)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렇게 하세요.                         |
| 40                   | 2)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
| 41                   | 3)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
|                      | 4)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 <b>국내뉴스</b>          |  |
| 42                   | 1) 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 출발                       |
| 43                   | 2) 2021년 어선 65,531척으로 확인, 전년대비 213척 감소                   |
| 44                   | 3)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공급 늘린다                           |
| 45                   | 4) 바다활동이 늘어나는 가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 <b>MARSА Notice</b>  |  |
| 46                   | 협회교육안내   |
| 47                   | 1)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
| 48                   | 2)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
| 49                   | 3)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
| 50                   | 4)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
|                      | 협회후원안내   |

## 기고문

#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활성화 필요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장 인 식

2021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2018년 여수해양경찰서장  
2015년 군산해양경찰서장  
1999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벨을 중시하는 여가 문화의 활성화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해양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강릉 KTX 개통 등으로 이제 동해 바다는 봄·여름·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광객의 증가로 사고발생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중심으로 안전정책을 펼쳐왔다. 우리 청은 올해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지역 17개소(89명)에 해상 순찰대를 운영하였고, 해안가, 항·포구, 방파제 등 위험 구역에 순찰을 강화하였다.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하여 연안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일반인들에게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에 대한 홍보 및 위험 예보제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등 사고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였다. 물놀이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180회(8,917명 교육)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수기 관할 해역에서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0명중 9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연안안전·생존수영 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바다에 대한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20년 사고 27건 사망 10 → '21년 사고 44건 사망 9 → '22년 사고 33건 사망 10 / 이상 동해청 기준).

우리 동해청은 우리나라 면적의 2배가 넘는 바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해양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동해처럼 광활한 바다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같은 민간자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해양사고 중 민간 세력 구조 실적도 약 22%에 달하고 있다.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 정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해양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왕립 구명정 협회'라는 조직이 1824년에 설립되어 현재 구조정 약 450여척 등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약 1만 명의 구조대원과 서포터 약 8만 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 해양 국가는 어민·잠수사·레저보트 등 해양 종사자로 구성된 민간 구조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미국 약 2만 5천, 일본 약 5만 2천명).

우리나라도 한국해양구조협회와 같은 민간 구조세력이 점진적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협회 참여자도 과거 어업종사자 중심에서 레저·수상구조사·드론·서퍼 등 다방면의 민간 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구조·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17년 3,671명 → 21년 9,792명 / 5년간 6,123명 2.6배 증). 선박 화재·침몰·전복 등 급박한 구조 상황과 기상 악화에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2013년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상조난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21년 한해 □협회에서는 179회 약 1천여 명이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하였고, 민간 해양구조대 교육·훈련, 해양 수중정화 활동 98회를 실시하는 등 수색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수난대비 기본훈련 및 해경서 구조대와의 합동 훈련에도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19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실제 구조상황에서도 해양경찰과의 팀워크 형성을 통한 해양구조의 민·관 협력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2년 6월 한국해양구조협회(경북지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민·관 협력체계가 굳건한 해양강국들의 구조·구난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직은 물적·인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스스로 상황 전파 대응 등 자율·능동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 중심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 밀착형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세력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동해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시설물을 보강하고 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도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는 등 모두의 노력으로 즐겁고 안전한 동해바다가 되기를 희망한다.



##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9월 15일 본청 대강당에서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단체기념 사진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이강덕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박훈상 해경재향경우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간소하게 치러진 이번 행사에 외부 인사는 초청하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간 방영되어 현장의 해경 직원들과 관계기관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봉훈 청장은 기념사에서 “69년의 해양경찰 역사는 지난 68년 동안 국민의 응원과 함께 전 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발판이 될 현재를 내실 있고 견고하게 다지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총 개인 38명과 4개의 단체가 정부 포상을 받았고, 그 중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우리협회 부산지부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경북지부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제주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드론 역량 강화 특화교육」 실시

지난 8월 13일, 협회 소속 교육 강사들이 전국에서 드론을 운용하여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40명을 대상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드론 역량 강화 특화교육」을 진행하였다.



▲ 이론교육장에서 단체기념 사진



▲ 실외에서 드론 이용 구조 시연중인 민간해양구조대원들

이번 교육에는 우리협회 제주광역지부의 박개화 교육팀장, 김수복 교육팀장을 비롯하여 전북북부지부 스마트드론구조대 초대 대장이자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철원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복헌 제주 드론수색대장, 김대범 서귀포 드론수색대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해양 수색구조 드론(무인항공기)사용의 구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 분야에서 좀 더 세분화된 기술이 요구되어 드론수색구조대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필요요소를 공유하여 실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은 ▲드론 이용 구조 시연 및 연습(이·착륙 및 구조방송 시연, 구조용 레스큐튜브 투하 시연) ▲수색구조 및 훈련 경험사례 발표 ▲수중드론 운용법, 실시간 전송법 및 사례 발표 ▲드론 수상구조 특화교육 ▲질의 응답 시간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신철원 강사는 “이번 교육은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며 “개인 역량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특화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민간구조경진대회」 개최

지난 8월 28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민간구조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 보드레이스 중인 참가자들



▲ 김성태 회장 축사

해양경찰청이 주최한 이번행사는 우리협회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서울YMCA, 대한인명구조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우리협회와 (주)이마트가 후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김성태 회장을 비롯하여 이강덕 사무총장, 본부장 2명이 참석하였으며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해경서장, 대한인명구조협회장, 서울 YMCA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해경청 각 지방청 별 총 5개팀과 해양관련 민간단체 총 10개팀, 일반인 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등 총 3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종목별 경기는 육상경기 런-스вим-런(달리기-수영-달리기), 비치스프린트(백사장 달리기), 비치플래그(깃발 먼저 뽑기)와 해상경기 서프레이스(바다수영), 레스큐-튜브-레스큐(익수자 구조), 보드 레이스(서프보드 경주) 등 총 6종목이다.





▲ 해양청별 단체 대회에서 최종 우승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민간해양단체 우승팀인 YMCA울산지부

해양경찰과 민간단체를 구분하여 진행된 이번 대회는 단체전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우승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울산지부가 수상하였다.

김성태 회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체득한 구조역량을 발휘하고 평가해 보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다.”며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하였던 해양선진국의 구조시스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MARSA NEWS | 본부 뉴스 |

## 에버랜드(케리비안베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지난 8월 5일, 우리협회 교육연구본부는 용인 에버랜드 케리비안베이 물놀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경찰청과 에버랜드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 증가 및 익사사고 다수 발생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캠페인을 기획, 홍보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행사는 CPR 및 AED 사용법 교육, 어린이 해양안전 음악회, 구명조끼! 생명조끼! 캠페인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우리협회는 CPR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전담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을 비롯한 본회 직원 2명과 경북지부 소속 전문강사 4명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1 CPR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시범을 보이며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은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수욕장에도 물놀이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양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보람된다. 앞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기회를 더욱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강사들이 CPR교육에 앞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 물놀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1 CPR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



## 전남서부지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정화활동 실시

지난 9월 17일 전남서부지부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구 협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15명과 목포해경이 동참하였다.



▲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받는 중인 봉사자들



▲ 쓰레기 수거 중인 봉사자들

해양정화활동에 앞서, 전남서부지부 소속 김태영 응급구조사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기도폐쇄 전문 조끼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남서부지부는 매회 해양정화활동에서 전남서부지부 소속 전문강사들이 나와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며 해양안전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목포해양대학교 수변에서 약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마무리되었다. 모든 활동에 함께한 장재구 협회장은 “매회 다른 봉사단체들과도 협업하여 목포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봉사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의 안전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 부산지부·경북지부,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영예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우리협회 부산지부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 (왼쪽부터)동부산구조대 정경식 대장, 이병철 부산해경서장, 박영철 부산지부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지부는 2013년 협회설립 후 산업잠수사 등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전문구조대원을 포함하여 총 3,000여 명의 정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8개의 구조대와 148명의 어민들이 활동하는 3개의 구난대, 1개의 여성봉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실적은 음주사고로 물에 빠진 시민구조, 실종자 수색작업, 테트라포드 추락자 구조활동, 20톤급 예인선 기관실 선박화재 진압, 부산 앞바다 좌초, 기관고장, 침몰 선박 사고 구조 및 예인 활동 등 다수의 구조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간 10회 이상의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10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긴급 방제, 청소년 물놀이 안전교육, 바다안전체험 활동, 생존수영교실 운영 등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해양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9월 15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박영철 사무국장과 정경식 동부산구조대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이어 경북지부도 지난 9월 29일,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여 김태곤 협회장이 직접 김형민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경북지부는 현재 15개의 구조·구난대와 1개의 봉사대를 운영하며 총 2,232명의 대원들이 해양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실적은 2013년도 10월, 포항 영일만항 인근에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청루15호(8,461톤) 침몰사고 발생시 5일간 경북지부 구조대원 77명을 투입하여 수중수색 및 오염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18년도 제 25호 태풍 ‘콩레이’ 북상 당시 포항시 신광면 반곡저수지에서 발생한 실종사고에 투입되었고 2019년 11월에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에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포항시와 동해바다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고에 다수 참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정기적으로 울진·포항해경서 구조대와 합동훈련에 참여하여 팀워크 형성을 통해 효율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해양안전 홍보활동과 해양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왼쪽부터) 최병량 사무국장, 김태곤 경북지부협회장,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울산지부,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정화활동

지난 9월 14일, 울산지부는 울산화력본부 앞바다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 단체사진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부 봉사자 20여 명과 울산해경 오염방제과 5명, 울산화력본부 직원 20여 명 등 약 50명의 사람들이 울산 바다를 위해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이날 활동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에서의 해양쓰레기 수거는 진행할 수 없는 대신 수변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밀려 들어온 쓰레기와 낚시객 및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총 3톤 가량을 수거하여 바다 사랑을 실천하였다.

올해로 해양환경정화 4회차를 맞는 울산지부는 지역의 여러 기업과 단체들과 협업하며 바다 봉사활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해양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 등 구조활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 수거한 쓰레기들



▲ 테트라포드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울산지부 봉사자들



# 장흥구조대, 추석 명절 맞이 해안가 대청소

지난 9월 7일, 장흥구조대는 회진면 인근 해안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 단체사진

이날 행사에는 황인수 장흥구조대장을 비롯하여 15명의 장흥구조대원이 참여했으며, 완도해경과 어촌계장, 회진면장 등 총 30여 명이 모여 태풍에 밀려온 쓰레기부터 생활 쓰레기, 어민들이 버린 페어망 등 테트라포드와 선착장 인근에서 총 2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황인수 대장은 “추석을 맞아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장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올해는 2번의 해양정화활동이 남았지만 내년에는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해양정화활동을 좀 더 확대해서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장흥구조대는 해양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 및 파손된 선박들을 인양하는 등 장흥의 바다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장흥구조대원들

## 전남동부지부, 여수해경특수구조대와 「12주기 훈련」 실시

지난 8월 23일, 전남동부지부는 여수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와 함께 「12주기 훈련」을 여수 오동도 신항에서 진행하였다.



▶  
해경과 임성덕 팀장이 좌초어선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12주기 훈련」은 12일마다 한 번은 반드시 모여 전남동부특수구조대와 여수해경이 훈련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날 훈련은 A와 B팀으로 구분하여 오전과 오후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전남동부지부에서는 임성덕 행정팀장과 김경식 교육팀장, 이세미 대원이 참여하여 협회와 해경 총 16명이 함께 훈련하였다.

이번 훈련의 주된 요소는 ‘플페이스 마스크’를 요구조자에게 안전하게 착용시키는 것으로 ‘플페이스 마스크’란 물속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마스크이다. 좌초된 어선에서 에어포켓 안에 요구조자가 있는 경우 ‘플페이스 마스크’를 요구조자에게 착용시킨 후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반복 훈련하였다. 실제 구조현장에서 당황한 요구조자가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벗는 경우가 종종 있어, 최대한 안심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예측하여 훈련하였다.

전남동부지부는 매월 6회에서 많게는 12회 이상 해양구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여수해경과의 협동 훈련을 통해 실제 구조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안전요원 활

지난 8월 12일,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이 3년만에 군산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  
행사가 끝난 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전북북부지  
부 시민해양봉사대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을 슬로건으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이 주관하는 전국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이다.

행사는 비응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수중·핀수영, 철인3종경기, 바다수영, 해양어드벤처, 동력·무동력 해양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는 요트와 비치발리볼, 은파호수공원에서는 카누와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는 선수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으로 나서며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 관람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비응항 특설무대 일원에서 다양한 공예체험과 특산물 판매, 지역홍보관들이 운영되면서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경북특수구조대, 포항해경구조대와 합동훈련

지난 7월 27일, 경북지부 경북특수구조대는 포항해경구조대와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 단체 기념사진

이날 훈련에는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을 비롯한 15명의 대원들과 12명의 포항해경구조대가 함께 하였다.

훈련은 좌초 선박 내 수색 후 에어포켓 생존자 구출, 수중수색, 익수자 서프 구조 방법 등 실제 사고 현장과 같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드론항공 수색을 담당하는 임대근 팀장, 수중드론수색을 담당하는 최영준 상임이사, 수중사진 촬영에 배동환 대원, 서프보드구조에 최준우 이사, 다이빙 선박 운영에 강만철 이사 등이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전문 장비를 선보이며 경북특수구조대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훈련 강평에서는 황승욱 대장이 민간해양구조대로서 협의체 역할과 운영가이드 라인 등 조직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포항해경과 함께 민·관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대의 자체 훈련 및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여 구조대원들의 개인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훈련에 앞서, 논의 중인 황승욱 대장과 대원들



▲ 서프구조대가 구조를 위해 전복된 선박으로 향하고 있다.



# 경남동부지부, 7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소고도 인명구조센터」 운영

우리협회 경남동부지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경남 소고도에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다.



▶ 소고도 인명구조센터

경남동부특수구조대, 마산구조대, 창원구조대 등 총 3개의 구조대에서 268명의 대원들이 매일 9시간씩 근무하였다.

김성중 경남동부지부 협회장은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경남동부지부 협력사인 365병원 (원장 강명상)에서 대원들의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경남동부지부는 인명구조센터 운영 기간동안 총 60여 건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해파리 제거 및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병행하였다. 또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무상대여하고 그 외에도 휴대폰 급속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 구명조끼를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물놀이 피서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소고도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양안전이 취약했던 지역 중 하나였지만 경남동부지부의 10년간의 노력 덕분에 피서객들이 큰 사고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울주구조대, 「진하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운영

울산지부 울주구조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다.

울주구조대에서 29일간 총 139명의 대원들이 투입되었으며 구조대가 보유 중인 제트스키 2대를 동원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울주구조대는 총 10건의 인명구조와 23건의 응급처치, 2건의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진하해수욕장에는 윈드서핑 등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먼바다로 휩쓸려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 보호자가 잠시 방심할 때, 아이들이 튜브에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모래사장에서 근무를 서는 울주구조대원은 항시 피서객들의 동향을 살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즉시 제트스키를 이용하여 곧바로 구조작업에 돌입한다.

진하해수욕장에는 해파리 떼도 출몰하여 피서객들이 물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울주구조대는 해파리 제거뿐만 아니라 피서객들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다. 이처럼 울주구조대는 한 건의 인명 피해도 없이 바다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난 8월 21일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 진하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센터를 운영 중인 울진구조대원들



▲ 떠내려간 튜브를 건져 올리는 울주구조대장



▲ 해파리를 제거하고 있는 울주구조대원들



# 전남서부지부, 독도~이어도~가거도 해양영토순례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7월 11일, 우리나라 최동단의 독도, 최남단의 이어도, 최서단의 가거도(초)를 경유하는 해양영토순례 항해를 시작하였다.



▲ (맨 왼쪽 태극기를 흔들며) 장재구 협회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목포항을 출발한 9195t급 실습선 세계로 호(선장 김진수)는 1125해리(2083km)를 4박 5일 간 항해하였다.

이번 해양영토순례는 중국과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행사에 우리협회 전남서부지부 장재구 협회장이 참여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독도 입도 행사 기획과 실제 독도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하였고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과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라는 해양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례모니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우리협회 전남서부지부 장재구 협회장이 참여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독도 입도 행사

또한, 해양 관련 전문 교수들이 특별 초청되어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 울릉도 공항건설공법, 대한민국 해양 역사 등 짜임새 있는 강의를 통해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장재구 협회장은 이번 행사에 이어 지난 7월 30일부터 3일간 울릉도 통구미 거북바위 앞에서 해양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등 바다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홍보와 해양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오염수해양방류 반대 피켓 시위



▲ 장재구 협회장이 수중에서 구조 깃발을 흔들고 있다.

# 완도구조대, 「명사십리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운영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완도구조대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다.



▲ 여름철 명사십리해수욕장



▲ 피서객들 안전을 위해 순찰 중인 완도구조대

완도구조대는 51일간 누적인원 약 300명이 근무하였으며 완도구조대 보유 구조선 1척과 제트스키 4대가 투입되었고 근무 기간동안 8건의 인명구조가 있었다. 해양 사고 발생은 튜브를 타고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 물살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몽돌에 붙어있던 굴 껍질 때문에 피서객들의 잦은 부상이 발생 되어 응급환자 이송에도 투입되었다.

완도구조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해오며 올해로 23년째 완도지역의 바다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전국 구조·구난소식

## | 울산지부, 투망작업 실종자 수색작업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지난 9월 5일 저녁부터 서귀포 인근 해상에 접근하여 9월 6일 한반도로 북상한 슈퍼 태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0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해오며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태풍에 대한 위험경보가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은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지난 9월 6일, 태풍이 막 울산 지역에 착륙할 때, 임랑해수욕장 인근에서 투망작업을 하다가 강한 태풍에 휩쓸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0대 어민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울산해경의 실종자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아 사고 발생 4일 차인 9월 9일, 울산해경은 울산지부에 수색 지원요청을 하였다.

현장에는 구춘근 협회장과 김순기 행정팀장, 최진식 아라봉사 대장이 투입되었다. 김순기 팀장과 최진식 대장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울산해경과 함께 수색작업을 진행하였지만, 태풍의 여파로 인해 기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끝내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준비중인 울산해경과 울산지부 대원



##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 장흥구조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선박 인양

지난 9월 6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장흥에서도 지난 9월 6일 오후, 태풍 피해로 인해 대리항에서 침수 선박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장흥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는 황인수 장흥구조대장을 비롯하여, 박종문 고문, 김성필 고문 등 총 9명의 대원들이 출동하였고, 장흥구조대 보유선박과 잠수 장비를 투입하여 침수선박을 인양하였다.

또한, 이날 태풍피해로 선박에서 흘러나온 스티로폼, 어망 등이 바다를 떠다니며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흥구조대원들이 직접 부유물들을 건져 올리며 현장을 수습하였다.



▲ 침수선박을 인양중인 장흥구조대

## | 바다에 빠진 취객 구조에 나선 전남동부특수구조대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경, 여수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서 취객이 비틀거리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제트스키에 탄) 유제선 대원이 취객을 경찰에게 인계하고 있다.

취객의 일행이 구조요청을 하였고 때마침 근처 레저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전남동부지부 윤성휘 대원과 유제선 대원이 제트스키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하였다.

사고 당시, 대원들은 제트스키로 바나나보트를 운행 중이었으며 긴급 구조로 인해 보트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동부지부 대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투기 추락 사고 출동

지난 8월 12일, 오후 12시 24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4팬텀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직후 소방당국과 해경은 현장에 구조인력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 추락한 전투기 수색에 나서는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원

이날 평택해경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기충남북부특수구조대는 신봉재 대장을 비롯하여 총 3명의 구조대원이 가라앉은 전투기 수색을 위해 현장에 동원되었고 양식장 부근이라서 작은 소형 어선을 투입하여 소나(SONAR)를 활용해 해저 상황을 탐지하였다.

해당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다행히 비상 탈출하여 근처 어민에게 구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4 팬텀 전투기는 30년 이상된 노후 기종으로 1958년부터 미국에서 제작되어 현재 한국, 일본, 터키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마산구조대, 짚라인 충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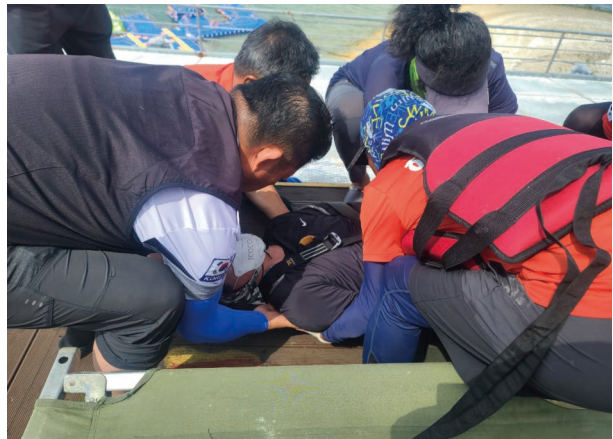
경남동부지부 마산구조대는 지난 7월 29일, 짚라인 충돌사고 발생으로 부상을 당한 A씨(61)를 긴급하게 구조하였다.

이번 사고는 진해 해양공원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가로질러 소고도에 도착하는 짚라인을 이용한 승객 A씨가 소고도에 도착할 때 쯤, 12미터 높이에서 짚라인에 매달린 채 기계결함으로 인한 견인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깡' 소리가 인근 주변까지 들리면서 소고도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던 마산구조대 이용진 대장과 대원들은 소리가 발생한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였다.

마산구조대는 짚라인에 매달려 있는 A씨를 육상으로 이동시켜 응급처치를 한 후 창원해경 진해파출소와 119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였다.

마산구조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A씨는 긴급한 상황을 무사히 넘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혈을 막기 위해 봉대를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마산구조대원들



Hot 人

## 4차산업의 트렌드 드론으로 생명을 구조하는 '박문호 대장'의 구조이야기

| 인터뷰 \_ 부산해양경찰서 (민간)드론수색대 박문호 대장 |  
(부산지부 동부산구조대)

4년 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오륜기가 전 세계 25억 명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오륜기의 정체는 바로 4차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이었다. 당시 1,218대의 드론이 한 대의 컴퓨터와 한 사람의 조종사에 의해 작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미국 ABC는 "동시 비행하는 드론 수로는 사상 최대다.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고 했으며 영국 BBC는 "굉장한 광경이었고 놀라웠다."고 전하였다.

드론은 토지 측량과 시설물 점검 등의 작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군사, 농업, 운송,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드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인명구조에서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드론을 날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우리협회 부산지부 소속이자 부산해양경찰서 드론수색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문호 대장 역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드론을 접하여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박문호 대장을 통해 그의 드론 구조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 박형민 전 부산해양경찰서장과 박문호 대장이 드론수색대 임명장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육·해·공을 넘나드는 드론 구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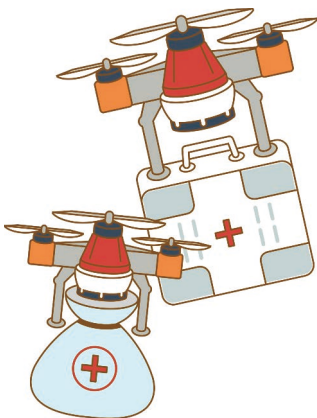
▲ 부산해양경찰서 드론수색대

B폴리스 수색대'에 영입되어 23명의 경찰과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23명의 경찰 모두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 대원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수색 및 영상 촬영기법을 박 대장이 직접 교육하기도 한다. 박 대장은 이곳 '부산 B폴리스 수색대'에서 유일하게 민간대원으로 활약 중이다.

육상에서는 주로 금정산, 수정산, 구덕산, 낙동대교 중심으로 낙상사고, 자살 및 실종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산속이나 낙동대교 인근을 수색할 때, 드론의 활용도가 높으며 실제로 실종자 수색에 많은 성과를 보여왔다.

박문호 대장의 활약이 더욱 대단한 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술력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무보수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B폴리스 수색대'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을 출동할 정도로 출동횟수가 잦다. 24명의 대원 중 유일하게 민간인인 박 대장은 봉사 정신 하나로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박문호 대장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보유한 드론을 이용하여 경계를 두지 않고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가운데) 박문호 대장이 부산경찰청과 드론수색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문호 대장은 현재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드론수색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 10여 명의 드론 조종자들과 함께 활동하는데 모두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다. 이곳에서 박문호 대장은 해양경찰과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 및 수색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발대 한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지만 남향대교, 태종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살 사건, 여름철 물놀이 중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 박문호 대장의 드론 덕분에 단시간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테트라포드, 무인도 등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수색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박문호 대장의 활약은 바다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20년에는 부산경찰청과 MOU를 맺으며 '부산

## 10kg의 무게와 그 이상의 책임감

육지에서는 실종자가 발생 되는 경우 선발로 출동한 경찰들이 실종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드론의 힘을 빌린다.

**“산에서 실종되는 경우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추적하여 위치를 예측한다. 산 중턱, 산 정상 할 것 없이 실종자가 있을 만한 장소가 발견되면 10kg의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른다.”**

박문호 대장이 사용하는 드론 장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드론부터 배터리까지 그 무게가 약 10kg 이상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는 가쁜 숨을 몰아치며 산을 오른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마주칠 때면 반드시 찾기를 바라는 절실함에 그 책임감은 가방의 무게보다 더욱 무거워진다.

드론의 수요자가 많아지는 만큼 최근 드론 자격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만큼 드론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인력도 늘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조종 미숙 혹은 적합하지 않은 장비로 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드론이든 카메라 기능에 중인이 가능해야 한다. 실종자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카메라에 찍혀있는 물체가 사람인지 그냥 물건 더미인지 정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드론을 하늘에 띄우기만 하고 철수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드론이 우리사회에서 점점 활용도가 많아져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종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 산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날리는 박문호 대장

## 초심을 잃지 않고 후학양성까지



▲ 드론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 중인 박문호 대장

박문호 대장이 정식으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2017년도지만 그에 앞서 2000년 초반부터 드론과 유사한 RC헬기를 오랜 시간 취미활동으로 조종해왔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드론을 처음 접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처음 드론을 조종할 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촬영하다 보니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드론 조종자를 양성하는 지도자가 되어 업으로 삼고 있다.”

박문호 대장은 수색활동뿐만 아니라 해양정화활동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평균 10회 이상 부산지부와 함께 해양정화활동에 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익수자 구조훈련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레스큐튜브를 요구조자에게 전달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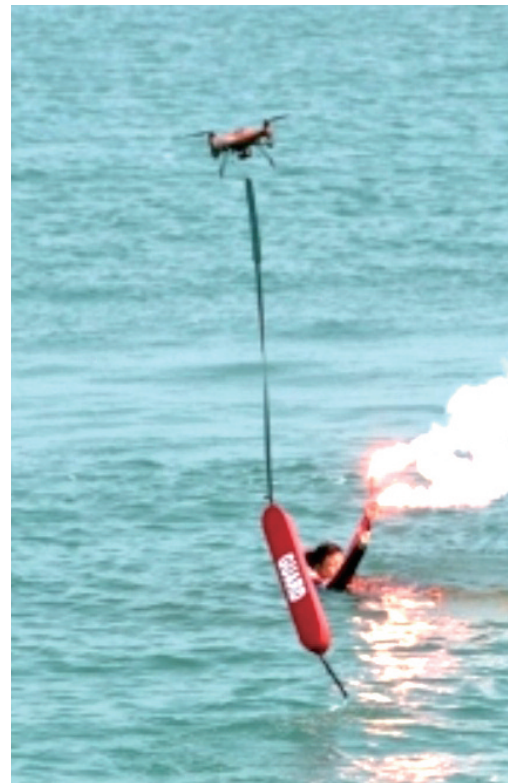
“처음 드론 촬영에 매료된 이후 드론 기술을 더욱 습득하기 위해 농업 방제활동부터 드론 촬영기법, 드론 수리방법, 드론 조립까지 드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 열과 성을 다해 배웠다. 현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문호 대장은 현재 드론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에 익숙해 져야 하는지에 대한 밀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며, 의무와 책임감의 무게도 함께 가르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했던 열정을 더해 후학 양성까지 하는 박문호 대장의 행보를 보며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본다.



▲ 박문호 대장이 보유한 스플래시3 방수드론



▲ 요구조자에게 드론으로 레스큐튜브를 전달하는 훈련

# 안전을 부탁 海

## 장흥구조대의 자신감은 훈련으로부터!

### '필리핀 현지훈련과 봉사단체로서의 아름다운 행보'

| 인터뷰 \_ 김성필 장흥구조대 고문 (전남남부특수구조대장) |

연휴도 없이 매일 팀을 이뤄 장흥군의 항포구를 순찰하는 장흥구조대 덕분에 장흥군의 바다는 큰 사고 없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바다 봉사이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흥구조대원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바닷속으로 뛰어들기가 부지기수이다. 반드시 전문적인 해양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고 구조활동을 위한 반복 훈련과 교육은 대원들에게 의무사항이다.

오늘도 바다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해양순찰을 나서고 있는 장흥구조대는 좀 더 선진화 된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시도하고 개인의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심해 잠수능력 향상을 위해 필리핀 현지훈련을 진행한 장흥구조대의 훈련이야기를 통해 바다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들을 들여다보았다.

### 변화의 시작, 필리핀 현지 훈련

장흥구조대 설립 초기에는 지금 만큼 구조훈련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지역의 특성상 수중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수색구조 시 많은 난항을 겪어왔고, 수중 교육 역시 쉽지 않았다. 수중 시야가 확보되면 겨우 1미터 정도이기에 심해잠수 훈련은 시도조차 못했으며 이러한 환경 때문에 수중영상, 사진 등을 담지 못하여 개인 잠수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개인역량이 어느 정도 인지 판가름하기 힘들었다.

장흥구조대는 더이상 기존의 훈련방식으로는 한계를 느껴 심해잠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에 대장들과 대원들이 한데 모여 2018년 6월 「제1회 필리핀 다이빙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하였다.



▲ 필리핀 현지에서 장흥구조대 깃발을 흔들고 있다.

## 진보적인 해양구조대를 위해서

3회차를 맞는 이번 필리핀 훈련은 수중에서 인명구조 및 수색 훈련과 다양한 구조영법 등을 계획하고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총 16명의 구조대원이 필리핀으로 향했다. 이번 구조훈련은 그동안의 훈련을 바탕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다양한 훈련을 시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김성필 대장은 훈련기간 동안 다이빙 역량 강화를 진행했던 자료와 봉사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장흥군수와 의회를 찾아 해양구조대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어필했으며 적은 예산이지만 소정의 지원을 군에게 요청하였고, 이를 필두로 대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훈련은 1킬로미터 거리를 다양한 영법으로 오가는 것부터, 난파선에서의 수색구조 방법, 실종자 인양 방법, 수면에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훈련 등을 하였다. 또한, 참가했던 16명의 회원 중 8명은 전남남부특수구조대원으로 난파선이나 제한된 구역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사이드마운트 장비와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50미터 심해잠수 훈련을 병행하였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년간 현지훈련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훈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해온 만큼 대원들의 역량은 한층 더 전문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었다.

- \*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두 개의 탱크를 등이 아닌 양 옆구리에 고정을 시키는 형태로 다이빙 하는 것
- \* 나이트록스 : 공기(산소21%, 질소78%)보다 더 높은 함량의 산소를 사용하는 기체를 말함.



▲ 잠수훈련 중인 장흥구조대



## 훈련을 넘어 나눔까지 실천하는 장흥구조대

지난 2018년 첫 훈련을 떠난 대원들은 직접 사비를 들여 항공 비용부터 적지 않은 활동비를 마련하여 필리핀 현지훈련을 진행하였다. 넉넉하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빈민촌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국내에서 구매한 학용품 300세트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현지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장흥구조대는 다음 해 2019년 방문에는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용품 세트를 구매하여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 필리핀 현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 주고 있는 장흥구조대

최근 코로나가 끝나고 2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한 장흥구조대는 완도해양경찰서에서 후원한 학용품 500세트를 포함한 총 1,000세트의 학용품과 장흥군 수협 중앙회, 장흥 관내 상가에서 후원해 준 후원금을 통해 각종 생필품 및 간식을 구매하여 보호에 있는 필리핀 학교에 전달하였다. 장흥구조대의 봉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후원 요청이 더해져 점점 더 지원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다.

훈련 목적지인 필리핀 보호는 직항이 없어 세부를 경유해야 한다. 세부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화물비만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받은 필리핀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코리아 레스큐팀 감사합니다”라는 우렁찬 인사와 함께 전해주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황인수 장흥구조대장과 대원들은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하고 다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장흥구조대의 봉사포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단체와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지금까지는 필리핀 현지 학생들 중심으로 후원해왔으나, 내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마을을 지정한 후 현지에서 쌀과 간식 등을 조달하여 물품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원들의 사비로 시작된 활동비용으로 단순히 훈련으로 끝낼 수도 있었던 필리핀 현지훈련을 나눔까지 실천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장흥구조대는 봉사단체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한다. 앞으로 어떤 활약으로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갈지 장흥구조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본다.



▲ 2018년 첫 필리핀 방문 당시 학용품 전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환경을 부탁 海

# 파키스탄의 홍수, 유럽의 폭염, 지구의 경고

##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흔적들

파키스탄은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었다. 1,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민 7명 중 1명인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피해를 입었다. 수재민만 640만 명에 달하고 도로 및 철로 5,735km가 물에 잠겼다.

사상 최악의 홍수로 인해 이재민들은 콜레라와 설사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으며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파키스탄 당국은 대홍수로 전국 880여곳 병원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전염병까지 퍼지고 있어 국가적 대 난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 홍수에 잠긴 파키스탄

최근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홍수로 수원이 오염되면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 식수마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로도 차지하지 않는 국가이다. 사실상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가 입을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가뭄 현상은 최소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땅이 말라붙은 상태로 인해 생태계까지 흔들고 있다. 강물이 마르자 세계 2차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 20여 척의 잔해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수력발전이 평균 20프로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함부르크 시내 대형마트에서 생수 판매를 한 사람당 5병으로 제한하기도 하면서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자들의 외침

지난 4월 6일, 전세계 26개국에서 천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후변화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는 인류 역사상 과학자들의 가장 큰 집단적 움직임이다.

파업과 시위에 나선 과학자들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울부짖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위기와 관련하여 꾸준히 증명해왔지만 국가, 기업, 시민들이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 NASA의 과학자이자 기후학자인 피터 칼머스 -

NASA의 기후학자인 피터 칼머스(Peter Kalmus)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JP Morgan Chase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연설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내가 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사회는 기후 비상상태로 이행하고 불과 몇 년안에 화석 연료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출신 과학자는 “1.5도 상승 여제를 위한 싸움은 끝났다. 이 행성에서는 인간 존재를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며 그 심각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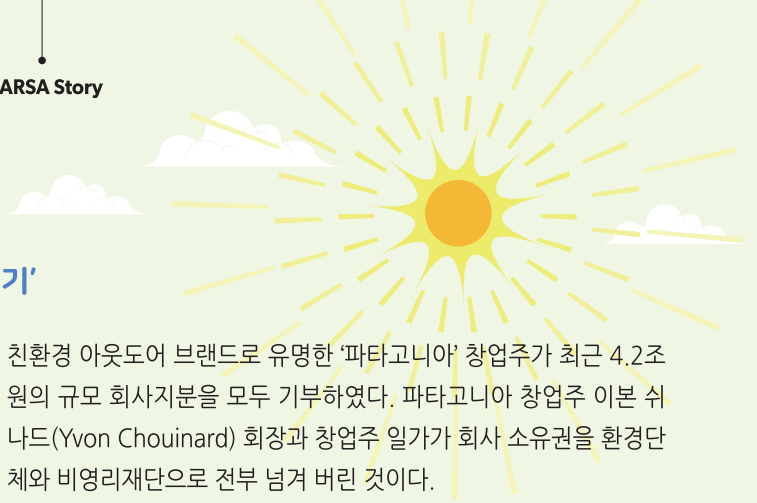
▲ 시위에 참가한 과학자들

과학자 반란은 이미 과학적으로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돌이킬 방법이 없는 '엔드게임'에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적 이익,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여 실제 기후위기의 위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어떤 특정 가치관이나 태도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치중립'을 중요시 여기는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시위는 도로 차단, 인프라 피케팅 등 조직적인 행보로 이어졌고, 그 모습에 찬반이 뒤섞인 시선이 오가고 있지만, 우리는 왜 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수 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 역시 유튜브를 통해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가치 있는 소비하기'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로 유명한 '파타고니아' 창업주가 최근 4.2조 원의 규모 회사지분을 모두 기부하였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 회장과 창업주 일가가 회사 소유권을 환경단체와 비영리재단으로 전부 넘겨 버린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가치실현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며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왔다. 이본 쉬나드 회장의 이러한 결정으로 앞으로 매년 1억달러(약 1390억원)에 이르는 수익이 환경 보호 관련 사업에만 쓰일 예정이다.

쉬나드 회장은 "(이번 결정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로서는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재료로만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매년 매출의 1%를 환경을 위해 기부해왔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라는 게 핵심이며 회사의 행보는 단순한 홍보성 발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지분 100%를 넘김으로써 그의 소유는 이제 0%이다. 세금회피도 아니며, 오히려 이번 일로 1750만 달러(약 24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허울뿐인 이름만 '친환경' 제품인 곳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구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엔드게임'에 곧 진입할 지구환경에 빠른 변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제품과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개인인 '소비자'이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과 탄소 제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과 폐기를 반복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이상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지구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한다는 것에 어떤 선택지가 없다. 소비자들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적인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마인드에 가치를 둔 신생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것 만큼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없지만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 해양경찰 소식

#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렇게 하세요.

**사고 초기 선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국어 동영상으로 제작**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좌초·침몰 등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될 때, 선원들이 해야 할 신고,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 등 다국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 ~ 21년) 1,356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외국적 선박 사고는 전체 사고 중 188건으로 14%를 차지하며 이 중 러시아 선박 오염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22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1년 국내 선사에 근무하는 선원 57,670명 중 외국 선원은 27,333명으로 47%를 차지하며,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이 11,166명(41%)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기름이송 작업 중 유출, 선박의 충돌, 침몰 등 3가지 사고상황에 대해 선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사, 협회, 수협, 선원 교육기관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 유출 사고는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교육 영상을 통해 한국 선원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 선원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 » 해양경찰 소식

#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 해양경찰·경찰 합동으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한 국외도피사범을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송환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2022년 8월 31일(수)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하여,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명인 피의자 A씨(49세, 중국 국적)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명의 피의자 B씨(38세, 러시아 국적)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 '20.4.18. 울산해양경찰서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선박파괴 A 지명수배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은 사고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전(前) 1항사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



다.

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외사과)에 따르면 송환 추진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 '22년 상반기 소급적용 시 신고포상금 지급건 수 : (현행) 10건 → (개선) 21건(110% 증가)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에 따라 얼굴 등 공개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최근 발생사례를 보면 '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리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해양경찰청



## ● 국내 뉴스

# 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 출발

## 해양수산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삼아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계획은 작년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①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②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③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3차 계획(2016-2020) 때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 < 추진전략1.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하였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 < 추진전략2.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km<sup>2</sup>, 2030년까지 105km<sup>2</sup>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km<sup>2</sup>, 2030년까지 540km<sup>2</sup>를 조성한다. 한편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

### < 추진전략3.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을 저감한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 < 추진전략4. 기후위기대응 이행력 확보 >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및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 < 중점 추진과제 >

먼저,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물류의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며 유망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업계의 세계 친환경 선박 건조시장 선점과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 해운 시장 선도를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용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의 전망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덮친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기후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 침수·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따라서 연안재해 전단계에 걸쳐 대응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중장기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재해 대응력이 높은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 침식 관리 역시 중요하다. 연안 육역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개정을 통하여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표적 연안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서는 높은 파도, 폭풍해일 등 더 강화된 재해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부터 시설 보강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위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 2021년 어선 65,531척으로 확인, 전년대비 213척 감소

## 해양수산부, 2021년 등록어선 통계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어선이 전년대비 213척 감소한 65,531척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감척사업, 어획량 할당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년 등록 어선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인 등록어선통계를 작성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체 등록어선은 2020년보다 213척 감소한 65,531척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어선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고 신규 어업허가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 척 수(등록어선/감척) : ('00) 95,890/140 → ('10) 76,974/1,267 → ('15) 67,226/371  
→ ('19) 65,835/373 → ('20) 65,744/229 → ('21) 65,531/217

어업별로는 연안어선이 37,062척(5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장 관리선 18,915척(28.9%), 내수면어선 3,001척(5.9%), 근해어선 2,492척(3.8%), 원양어선 192척(0.3%)순으로 조사되었다.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2,460척으로 80% 이상을,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만들어진 어선이 63,237척(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안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의 대부분이 5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며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5톤 미만) 52,460척 (5~50톤) 11,930척 (50톤 이상) 1,168척

\*\* (FRP) 63,237척 (강선) 1,185척 (목선) 882척 (알루미늄) 227척

선령 21년 미만 어선이 전체의 2/3를, 21년 이상 어선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부산, 전북 순으로 어선이 분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등록어선 통계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산자원 관리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어선 현대화사업, 표준어선형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어선통계」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과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 ● 국내 뉴스

#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공급 늘린다

## 연안어선 승선인원, 소규모 양식장 고용 한도 등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2년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연초 4천명에서 추가로 610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8월 31일(수) 개최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기간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7월말 기준 어업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천명에 이르며 당초에 배정한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연안어업(10톤이하 어선) 고용허용 한도는 당초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2021년 연안통발·자망어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연안복합어업이 척당 4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머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에 대해서도 척당 한도를 상향하여 모든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는 척당 4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척당 외국인력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양식업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연안어업과 양식업 사업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 기준(척당 4명, 전체 승선원의 60% 이내)을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연안어업, 소규모 양식업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도입규모 추가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 바다활동이 늘어나는 가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해수부, 추석연휴, 행락철 등 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철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어획량이 늘어나는 성어기로 어선의 입출항이 가장 빈번한 시기이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여객선의 통항량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많게는 3개까지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 해양사고 발생 건수('17~'21) : 가을(4,438건) > 여름(3,833건) > 봄(3,066건) > 겨울(2,763건)
- 해양사고 인명피해('17~'21) : 겨울(172명) > 가을(168명) > 봄(152명) > 여름(99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위험물 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 가을태풍 등 위험요인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1.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 안전점검 강화

먼저, 추석 명절 귀성객 등 수송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1척)과 국제여객선(19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에 취약한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 총 600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 마다 점검을 전담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지정해 집중점검하고, 위험물 운반선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용접작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2.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우선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2인 이하가 승선해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운 나홀로 조업어선 350척에 구명조끼, 안전사다리 등 안전장비를 무상보급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양망기 원격 무선조정장치'와 '스마트 안전모' 등의 안전장치도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 어선 조업작업 중 신체 끼임 방지 등을 위해 무선으로 양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 \*\* 어선원 위치 모니터링 기능과 충격감지 기능을 갖춘 안전모

또한, 충돌·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인줄에 대한 주의 알람 서비스를 바다내비게이션을 통해 9월부터 제공하고,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소형선박에 대한 기관·전기설비 점검을 강화한다.

### 3. 위험요인 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태풍·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 항만과 어항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해양사고 시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등에 관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수협 등과 공동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해예방 안전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장은 "가을철은 성어기를 맞아 출어선이 증가하고, 추석 연휴 여객선 및 행락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많아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2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http://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2022년 『해양안전지도사』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 | 2022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2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 2022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2급 20만원 / 1급 2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 이마트 마일리지 활용백서

쇼핑한 금액의 0.5%를 이마트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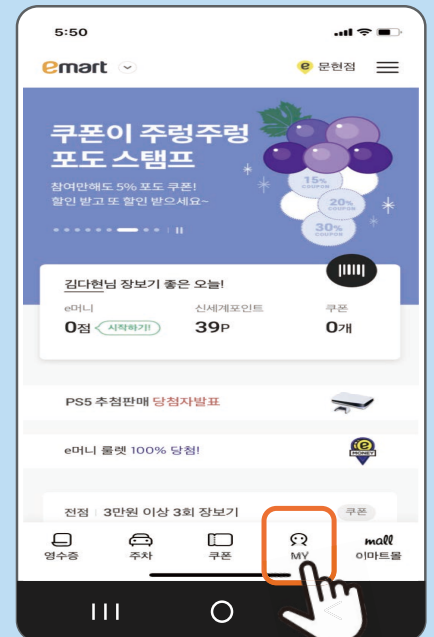
적립된 기금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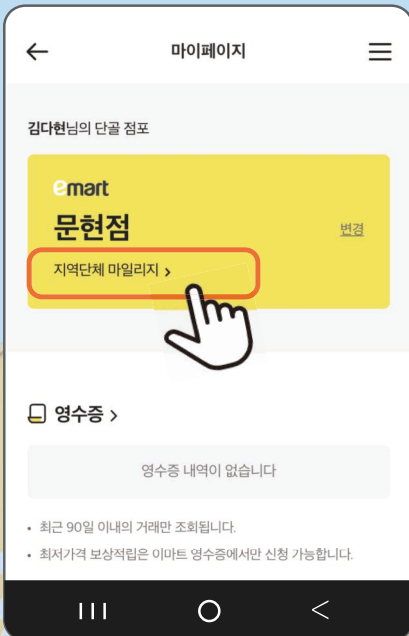
**1** 이마트 어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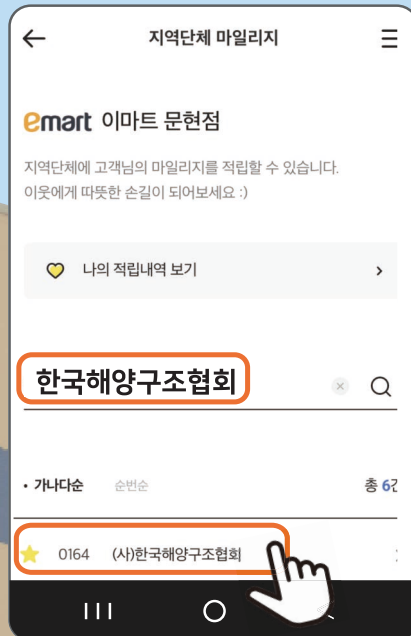
**2** 회원가입 후 단골점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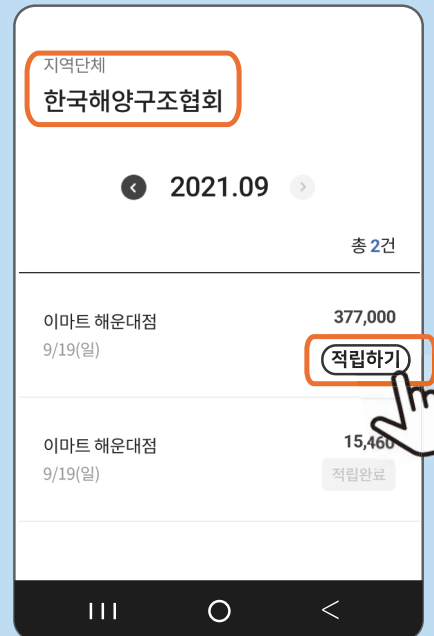
**3** 앱 화면 하단 my 클릭



**4** 지역단체마일리지 클릭



**5** 한국해양구조협회 검색  
즐거찾기 설정 후 클릭하기



**6** 적립하기 클릭  
(개별포인트 적립과 별도로 기부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종이영수증을 가지고 '고객만족센터' 방문



# 엠에스코리아

## 소방용 공기호흡기

KFI 인증  
KD-F45



## 휴대용 소화장치

CE, KGS 인증



AFT Backpack 10/02 AFT Trolleys 50/02

## 방독마스크

KC인증



인테그라 A1P3

## 공기충전기

KFI 인증



Compia-BC

## 호흡장치



긴급수난호흡장치  
KD-SEAD2  
KGS 인증



운반형 인공호흡기  
MicroVenTi  
GMP 합격



재호흡장비  
KD-CCBA  
KC인증

## 휴대용 가스측정기



VENTIS MX4  
KC인증

## 전신보호복



보호복  
MC6000  
KC인증



보호복  
MC3000  
KC인증



보호복  
MC4000  
KC인증



보호복  
Alphatec Light  
KC인증



소방용방열복  
KD-HPC  
KFI 인증

소방용특수방화복  
S-NX-PB01(UK,PT)  
KFI 인증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보호구

핸드폰 010-6369-9301

사무실 : 051) 973-1193

팩스 : 051) 973-119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99, 1층 103-1호